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

2020년 4월 22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04.21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04. 21(화) 08:00	담당부서	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
담당과장	배진석 과장(043-870-5360) 김영문 과장(061-338-4400)	담 당 자	박수진 연구사(043-870-5364) 한진형 사무관(061-338-4430)

인공지능 데이터 국제표준 우리 손으로 만든다!

- 제5차 인공지능 국제표준화회의서 전 영역 기술 논의 선도 -

□ **인공지능(AI) 기술 국제표준화회의**에 참가한 우리나라 대표단이 AI 데이터, 데이터 품질, 신뢰성 및 산업 활용 등 전 영역에서 기술 논의를 선도하며, 이 분야 **국제표준화 주도국 진입의 발판을 마련**했다.

○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승우)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(원장 김정렬)은 4월 6일부터 21일까지 열린 **'제5차 인공지능 국제표준화회의(ISO/IEC JTC1/SC42)'*에 산·학·연·관 전문가 33명**이 우리나라 **대표단으로 참가**했으며,

*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회의로 개최됨

○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인 **▲AI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작업 범위를 확대**하고 **▲머신러닝용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신규프로젝트를 제안하였으며** ▲우리나라의 **AI기술 활용 사례를 국제표준문서에 반영하는**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.

< 인공지능 국제표준화 회의 개요 >

○ 회 의 명 : 제5차 인공지능(ISO/IEC JTC 1/SC 42) 국제표준화 회의
○ 기간/장소 : '20. 4. 6.(월) ~ 4. 21.(화) / 온라인 회의
○ 참가규모 : 미국, 일본 등 30여개국 전문가 200여명
○ 대표단 : 조영임 교수(가천대), 임성준 책임(K데이터), 이강찬 실장(ETRI), 이재호 교수(서울시립대) 등 산학연관 전문가 33명

< AI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작업 범위 확대 >

□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해 10월 우리나라가 주도해 신설된 **AI 데이터 특별작업반*** 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제표준화기구의 데이터 표준화 작업범위를 빅데이터 표준화에서 **'AI 관련 산업에 활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'로 확대**해 표준화를 진행키로 합의했다.

* '19.10월 우리나라 제안으로 특별작업반 신설, 작업반장(가천대 조영임교수) 수임을 통해 기술연구 주도

○ 이에 따라, 우리나라는 올해 10월 차기 회의까지 미국, 중국, 일본, 캐나다 등 AI 선도국들과 기존의 빅데이터 표준안과 함께 AI를 활용하는 다양한 산업의 데이터 표준으로 확대한 AI 데이터 표준안 도출을 위한 신규프로젝트를 제안할 계획이다.

□ 또한,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**"AI 서비스 생태계" 표준화를 추진할 자문작업반(Advisory Group) 신설도 제안해 AI 산업 전반에 걸쳐 국제표준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.**

○ 통상 AI 서비스 개발자·제공자·수요자로 구성된 AI 서비스 생태계는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표준이 사전에 확립되지 않을 경우, 시스템의 비효율은 물론 상호간 충돌로 인한 서비스 확장 제한 등의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.

○ 이에 따라 「AI 서비스 생태계」 표준화 자문작업반은 **AI 산업 주체 간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과 새로운 서비스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장**하기 위해 생태계 구성원들이 갖추어할 최소한의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.

< 머신러닝용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신규프로젝트 제안 >

□ 우선, 한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머신러닝용 **데이터 품질 기술을 신규프로젝트(New Project)로 제안**(ETRI 하수욱 책임)**하였다.**

○ **데이터 품질은 수집·가공·유통 전 과정에서 데이터가 적정한 절차와 형식 등으로 처리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**으로서 **AI의 성능을 제고하는 핵심요소**이다. **우리나라가 표준화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는 등**

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미국과 독일 등이 품질검증 절차와 측정방법 작업에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.

□ '14년 12월 우리나라가 제안한 **빅데이터 참조구조**(시스템 구축·연계시 공통 적용되는 기술규격)**의 생성에 대한 국제표준안**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를 마무리함에 따라, **이달 말 기술보고서**(Technical Report)**로 발간**될 예정이다.

○ 이 표준은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통신,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공통 기술규격으로써 **빅데이터의 상호 호환성을 보장하게 된다.**

< AI 기술 활용사례 제안 및 신뢰성 표준화 제안>

□ 한편, 우리나라는 지난해 8건의 **인공지능 활용사례**를 기술보고서에 반영한 데 이어, 이번 회의에서 **17건**의 활용사례를 **추가 반영**했다.

○ 국내에서 개발한 자연어 질의응답, 챗봇, 질병 관리, 진단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사례가 담겨 있어, 국내외 **인공지능 서비스 확산에 기여**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더불어, 우리 대표단은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**'설명 가능한 인공지능(XAI, eXplainable AI)*'에 대한 신규 표준화 작업의 필요성을 제시**(서울시립대 이재호 교수)하였다.

○ XAI는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금융대출심사 결과에 대하여 "Why"에 대한 논리적 **인과관계를 설명**(EU(GDPR)는 '18년부터 설명 의무화)해 주는 등 **인공지능의 신뢰성을 제고하는** 기술이다. 현재 연구개발이 활발한 분야로 향후 각국 전문가와 **표준과제를 발굴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**할 계획이다.

□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과 김정렬 국립전파연구원장은 "회의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돼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,

○ **산·학·연·관이 협력해 AI 국제표준화 작업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데이터 관련 우리 기술의 신규 국제표준화 제안, 자문작업반 신설 추진 등 향후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교두보가 되어줄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**"고 평가하고,

○ 특히,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처 협력을 통해 **인공지능 융합서비스 모델에 대한 적극적인 표준화를 추진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**"고 말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박수진 연구사(☎ 043-870-5364)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한진형 사무관(☎061-338-443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